

서울은 언제까지 지리학에 저항할 것인가

발레리 줄레조의 《한국의 아파트 연구》

글 | 김진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받는 첫 번째 문화적 충격. “어떻게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많을까?” 알고 나면 오는 둘째 충격, “고층아파트가 그리 인기 있는 집인가?” 좀더 알고 나면 받는 셋째 충격, “고층아파트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상을 외국인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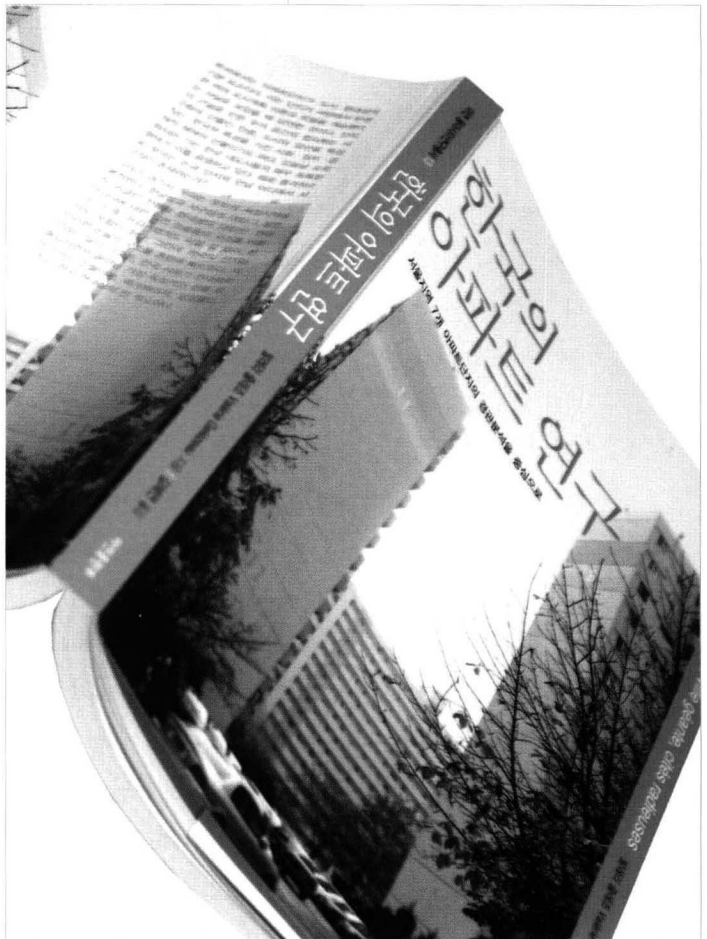
발레리 줄레조 교수는 체계적인 연구이 책은 역사학의 논문, 《서울: 기대원촌리, 빛나는 도시 Seoul, ville grante, cites radieuses》를 단행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를 통해 이런 문화적 충격을 차근차근 풀어낸다. 프랑스 학자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의문을 가졌을 법하다. 프랑스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파리에서는 고층아파트 단지를 도심 한가운데 세우는 법이 없다. 둘째, 그 고층아파트 단지들은 사는 집으로서의 인기가 없다. 셋째, 그 아파트 단지들은 우리처럼 자가 소유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국민주택)다.

‘고층아파트 단지’는 프랑스가 지적소유권(?)을 가졌다고 할 만도 하다. ‘빛나는 도시 Les Villes Radieuses’라는 제안은 20세기의 뛰어난 건축가·도시계획가인 르 코르뷔지에 의해 제기되었다. 파리의 오래된 전통 시가지를 없애고 그 위에 고층 플랫아파트를 덩성덩성 세우고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빛나는 도시’ 개념은 그 발상지인 프랑스에서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그랑당상블(Grand Ensemble, ‘기대원 조화’라 번역하면 될 것이다)’ 또는 ‘씨테’라 불리는 고층아파트 단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주택부족을 해결하느라 도시 외곽에 세워졌다.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유럽 대도시들과 미국의 대도시 일부에 이런 고층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빛나는 도시’ 개념을 계승한 셈인데, 1970년대 이후에는 입주 기피, 안전 문제, 범죄 문제 만연, 부정적 이미지 등 완전 실패로 판명되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대신 파리에서는 자족성이 보편된 신도시 정책으로 바뀌었고 5개 신도시가 세워졌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실패한 고층아파트 단지가 왜 동아시아 문화권, 특히 대한민국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가장 성공적인 ‘히트 국민상품’이라고도 할 만하니 말이다. 줄레조 교수는 간명하게 그 이유를 포착한다. 고층 아파트 단지는 한마디로 ‘국가주도상품’이자 ‘국민재테크상품’이라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량주택생산, ‘1가구 1주택’ 구호로 대변되는 ‘주택소유정책’, 정부와 재벌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가 주도했고 그 수혜자인 중산층의 ‘재테크 매커니즘’이 뜨겁게 호응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서울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단지들은 급격한 성장모델의 객관적 표현이다. 이는 재벌과 손을 잡고 국토의 구조와 한국의 경관을 책임진, 강



력한 정부에 의해 집단적인 방법으로 고안된 모델이었던 것이다.”(127쪽)

줄레조 교수는 도입된 이래 한동안 환영받지 못하던 아파트가 7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문화적 현상에 주목한다. 성장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었고 ‘중산층 성공의 상징’으로서 ‘아파트’가 떴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과거를 등진, 철저하게 새로운 사회의 출현과 연결됐다. 이는 결국 ‘탈피하다’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대로 ‘껍질을 벗은’ 사회였다.”(193쪽) ‘새로운 삶을 새로운 아파트에 담는’ 문화현상이 주류가 된 것이다.

줄레조 교수는 학자의 비판의식을 견지하되 따뜻한 시선으로 한국 아파트의 미래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기한다.

첫째, 저자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성장사에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1990년대에 들어서 일부 영구임대주택이 생겼을 뿐이다)을 지적한다. 고층아파트가 많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주된 구성인 것을 볼 때 자성할 부분이 많다.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주택정책 기조’는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상당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저자는 고층아파트로 토지이용밀도를 높인다는 계획 발상에 대한 회의를 표시한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도심의 도시형 주택의 밀도가 ‘씨테’의 고층아파트 단지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예시하며, 용적률 제고라는 명목상의 목표는 고층단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정부의 이해가 맞물린 현상이라고 비판한다. 부동산 경제 수단으로서만 다루어진다면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가나 건축가 등 전문 역할이 위축되고 결국은 그 결과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저자는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고층아파트가 더 이상 중산층의 구별 짓기 수단이 되지 못할 때, 단지는 급격히 사양화되고 도시 문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줄레조 교수의 문제 제기는 이미 서구에서 급격히 사양화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험에 기초할 것이다. 일본 도시의 경우에서도 보이듯 선진 사회에 진입할수록 대량생산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줄어드는 현상은 주택 정책과 도시 정책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줄레조 교수는 서울의 대표적 아파트 단지 7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다. “서울은 지리학에 저항하는 도시”(74쪽)라는 표현이다.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지만 고층아파트로 점철되는 서울의 경관과 끊임없이 부수고 새로 짓는 개발 습관은 지형지세를 살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드는 인문지리학적 도시 개념을 통째로 전복시켜버리고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100미터를 달리고 있다. 오직 속도만이 나의 무기다. 격려도 비판도 생각할 시간이 없다. 풀썩 도착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126쪽, 1960년대 불도저 서울시장 김현옥이 문화제를 파괴한다는 비판에 대해 대답한 말) 혹시 서울과 우리의 도시에 여전히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외국 학자의 성찰적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아야 할 때다. [1]

“나는 지금 100미터를 달리고 있다. 오직 속도만이 나의 무기다. 격려도 비판도 생각할 시간이 없다. 풀썩 도착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126쪽, 1960년대 불도저 서울시장 김현옥이 문화제를 파괴한다는 비판에 대해 대답한 말) 혹시 서울과 우리의 도시에 여전히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외국 학자의 성찰적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아야 할 때다. [1]

● 이 글을 쓴 김진애는 건축가, 칼럼니스트, 방송 출연자로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선농테라스, 산본 신도시, 수영정보단지, 인사동길’의 건축 작업과 함께 웹진 www.archforum.com을 운영하고 있다. 1994년 미 (타임)지가 ‘차세대 리더 100인’으로 꼽기도 했다. 저서로 <이 집은 누구인가>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 <새로운 종의 여자 메타우먼> <남자 당신은 흥미롭다> <여자 우리는 cool하다> <21세기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등이 있다.



《한국의 아파트 연구》 발레리 줄레조 지음, 김혜연 옮김, 이인출역, 288쪽, 15,000원

전통단절론에 대한 매서운 추궁

《끝나지 않는 식민지 학문 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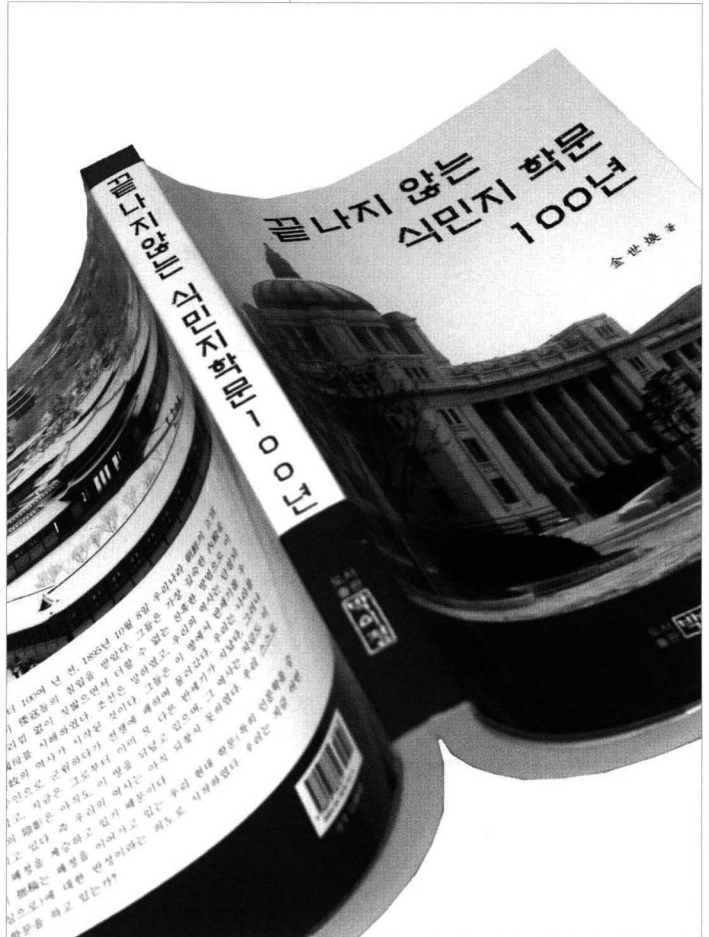
글 | 이명원

부산대 김세환 교수의 《끝나지 않는 식민지 학문 100년》은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의 현대 인문학의 전통단절을 매섭게 추궁하고 있는 책이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근대 인문학의 핵심 영역을 이루고 있는 문학, 역사, 철학 분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 분과학문의 식민성을 구조화하고 제도화했던 원천으로서의 서울대학교의 외래 추종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필자는 어떤 답답함을 느꼈다. 그것은 저자의 문제의식에 필자 역시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문학 분야에 대한 저자의 문제제기는 음미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근대문학을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전통단절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지적처럼 우리의 근대문학은 일제강점기라는 비운의 역사 속에서, 이른바 '주체학'이 아닌 '수입학'의 태도를 문학적 진보로 규정했던 역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체계적인 근대 신문학사를 기술하고자 했던 시인이자 비평가인 임화의 관점이 대표적이다. 그는 조선의 신문학사를 명치, 대정기 일본문학의 이식으로 보았고, 그런 차원에서 조선의 근대문학은 이전의 문학과는 전혀 다른 층위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이른바 '이식문학론'을 주장했다.

임화 자신이 이러한 견해를 펼친 것과 별도로, 이른바 신문학의 주도적 수용세력이었던 근대 초기의 문인 역시 동일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가령 조선에서의 최초의 신문학 이론을 제창했던 이광수의 《문학이란 하何오》에서의 주장이 그렇다. 이광수는 이 평론에서 근대적 '문학'이란 구미의 리터러처 literature의 역어임을 표나게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내려 온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문학文學 개념에 대한 통찰과 분석적 문제의식은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 이광수의 뒤를 이어 독자적인 문학론을 전개했던 염상섭의 경우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개성과 예술>이라는 평문에서 염상섭은 근대적 개인의식의 확보를 근대문학의 제일 명제로 제시했다. 물론 이때 염상섭이 제시한 근대의 모형은 르네상스 이후의 서구문학의 역사적 전통에 있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들 문인의 시야 속에는 조선의 누적된 전통이란 보이지 않았다.

김 교수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광수 등을 포함한 당시의 신문학인들은 조선적 전통에 대한 치밀한 검토보다는, 10대를 전후하여 받아들인 일본식 교육 앞에서 주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었다. 김윤식 교수의 주장을 원용하자면, 조선의 신문학자들의 기본적인 문학적 관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현해탄 콤플렉스'였다. 그들 문인들은 일제에 의한 조선강점이 조선의 근대적 개혁의 불철저에서 왔다고 보았는데, 기묘한 것은 그것의 대안이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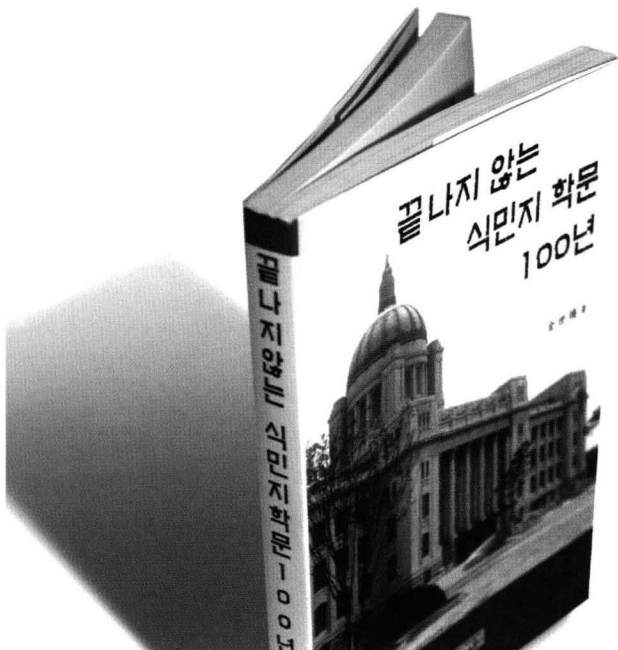
의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일본적 근대'의 철저한 추구에 있다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이 급격한 단절을 통해서만 조선에서의 근대가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통의 계승과 그것의 재해석을 통한 근대의 구축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무為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일본적인 것을 수입하는 것이 근대문학을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다.

이러한 왜곡된 문제의식은 해방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았다. 일제에 의해 설립된 '경성 제국대학'의 후신인 '서울대학교'의 등장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울대학교의 설립은 일본에 의한 정신의 식민화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식의 식민주의적 학문 태도를 더욱 확장시켜 학문의 불구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미국식의 분과학문 체계를 무리하게 도입함에 따라, 통합학문으로서의 조선적 인문학의 전통을 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문학 분과 안에서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그리고 '국어학'의 기능주의적 분화를 심화시켰다. 물론 그 결과 인문학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문인정신과 문학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김 교수는 이 부분에서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국학을 계승하고 사이버학문에 대한 자성의 계기를 이끌어내자는 제안이다.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현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철학에 대한 김 교수의 비판적 논의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조선시대의 성균관과 현재의 성균관은 그 명칭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체제의 대학이다. 김 교수가 비판하고 있는 이른바 '동양철학'이니 '한국철학'이니 하는 기이한 학과의 본산이 성균관대학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성균관대학 역시 김 교수가 비판하고 있는 국립서울대학교의 교수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대학제도를 뺄질식으로 보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전통적 인문학을 복원 계승할 수 있는 가치 '국학대학/대학원' 등을 신설하여, 김 교수의 학문적 문제의식을 제도화하는 것이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물론 이 제안은 몽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단 김 교수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학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터 본다면, 의외의 의미 있는 제안들이 쏟아질 수 있을 것이다. 김 교수의 전통단절론에 대한 매서운 추궁은 의미 있다. **한글**

● 이 글을 쓴 이명원은 199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타는 혀> <해독> <파문> <마음이 소금발인데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다> 등이 있다. 현재 <비평과 전망>의 편집주간이자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학부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끝나지 않는 식민지 학문 100년> 김세한 지음 | 박이정 | 366쪽 | 값 12,000원